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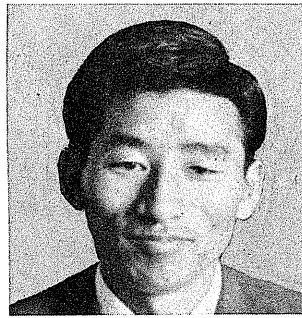
## 남부 지방대회

오랫동안 안 승언 지방부장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해 온 남부 지방부는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부산지부에서 지방대회를 가졌다.

이번 지방대회에서는 특히 지방부장단의 개편이 있었는데 지방부장단 제2보좌를 역임한 바 있는 장 재환 형제가 안 형제에 이어 새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쌓아온 커다란 신앙을 통해 보다 큰 발전을 다짐했으며 그의 제1보좌에는 김 수경 형제를, 제2보좌에는 안 재석 형제를 붙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부장단의 개편에 이어 새로운 한명의 장로가 탄생하는 등 대구, 진해, 마산, 동래, 부산 및 부산 동구지부에서 참석한 약 260여명의 성도들로 영적인 분위기에서 훌륭한 모임을 가졌다.



## 호남 지방부장에 박 병규 형제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는 광주지부에서 호남 지방대회가 열렸다.

오랫동안 일을 해오던 이 재수 형제에 이어 동광주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 병규 형제가 호남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지방부장단 모임과 전체 지부장단 모임을, 6시 30분에는 전체役員회를 가졌고, 일요일 8시에 신권회,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각각 1, 2차 총회를 가졌다.

꼭 두돌을 맞은 이번 지방대회에서는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및 군산에서 참석한 이백여명의 성도와 4명의 새로운 장로가 탄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으며 또 광주 지부장단의 개편이 있었는데 지부장에는 호남 지방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 재수 형제가 지난 2월 20일에 지지되었다.

전 지부장이었던 김 종택 형제에 이어 지부장이 된 이 재수 형제는 현재 전남 대학교에 직을 두고 계시며 오랫동안 교회의 중책을 맡으셨던 경험을 밑바탕으로, 크게 발전될 광주지부의 앞날이 자못 기대되는 바 크다.

## 교회 본부 역원 — 지역 모임 개최

지난 2월 10일, 주일학교와 청남, 청녀 상호 향상회의 본부 임원이 이곳을 방문하여 저녁 6시 30분에 서울 동부지부에서 합동으로 모임을 가졌다.

주일학교 임원인 스마트 형제는 한국 주일학교의 현황을 보고 받고 많은 발전과 훌륭한 조직을 칭찬하였으며 청남 상호 향상회 임원인 캐논 형제와 청녀 상호 향상회 임원인 오까자끼 자매는 성의껏 준비한 브리핑 차트에 흥미를 가졌고 또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잃어버린 회원들을 다시 찾아 함께 복음을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가진 모임에서 참석한 모든 역원들은 질의 응답과 토론을 통해 많은 영적인 양식을 얻었고 특히 훌륭한 영화 감상을 하게 되어 기쁨을 금치 못한다고들.....

## 동중앙 — 연극, 합창 발표회 갖다

지난 2월 11일에는 동중앙 지방부 상호 향상회 대회가 오후 6시 30분에 동부지부 홀에서 있었다.

이날 가진 모임에는 지방부 연극 및 합창 발표가 있었는데, 연극은 스탠리 호튼 원작 “돌아가신 조부님”을 동부지부의 이 용준 형제가 연출을 맡았으며, 합창 지휘에는 삼청지부의 양 봉산 형제가 수고해 주었다.



## 목포 — 선교 전시회 갖다

군산 전시회에 이어 가진 이번 목포 전시회는 2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목포 예식장에서 개최되었다.

다양하게 전시된 이번 모임에는 약 4,000여명이 다녀갔으며 1,000여명이 교회를 알기를 위해 왔다.

마지막 날 오후 7시 30분에는 목포 예식장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500여명의 사람들은, 박 병규, 이 재수, 이 범태 형제와 선교부장의 훌륭한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분위기에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갔다.

또 바쁜 일정 중에서도 부라운 선교부장은 목포 교육 대학장을 만나고 이어서 목포 시장을 찾아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자리에서 “행복의 추구”란 영화를 상영하여 참석한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 자리에서 선교부장과 선교사들은 차례로 시장으로부터 목포시 배지를 기증받고 담배로 물몬경과 몇 권의 책자를 선물로 전하였다.

이 모임을 통해 선교부에서는 훌륭한 결과라고 기쁨을 금치 못했다.

## 군산에서 전시회 갖다

지난 1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군산지부에 서는 전시회를 가졌다.

“참된 교회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요셉 스미스의 시현과 이 땅 위에 말일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설명한 대형 사진들이 전시되었으며 또 영화 “행복의 추구”를 상영하였다. 이 전시회를 통하여 약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20일 6시에는 군산 공군 기지에서 모임을, 8시에는 시내 동원 예식장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약 250여명의 사람들은 이 호남 형제와 선교부장의 말씀으로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또 부러운 선교부장은 군산 시장과 전북 부지사를 찾아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물문경과 교회에 관한 몇권의 책을 선물로 전했다.

이번에 가진 훌륭한 모임으로 선교사들과 이 지역의 성도들은 기쁨을 금치 못했다.



## 선교부 상향회—농구 대회 개최

작년 12월에 시작한 선교부 상향회 주최 농구대회가 해동과 함께 선교부 농구장에서 재개되어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다. 매주 토요일 마다 서울에 있는 각 지부가 리그전으로 대진하는 선교부장배 쟁탈 농구대회는 출전 희망팀이 늘어 앞으로 석달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응원집도 곁들인 이 대회는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각 지방부 대표팀을 구성, 한국 선교부의 패권을 다툰 예정으로 있다.

## 서중앙 지방부—중창 대회 성황

서중앙 지방부 상호 향상회 주최 중창 대회가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에 서부지부에서 개최되었다.

한 인상 지방부장의 감리하에 개최된 이날 모임은 시종일관 막상막하의 경쟁으로 채점관들을 곤란하게 했으며 종합 우승에는 서부지부가, 개인 우승에는 청운지부의 이재원, 이근덕 형제와 조혜은, 선혜영 자매의 사중창단이 차지했다. 이날 참석한 성도들은 너무나 세련된 참가 팀의 수준이 프로급이라고 모두들 수근수근.

## 춘천—지부로 승격

오랫동안 지역으로 자라온 춘천 지역이 지난 3월 12일 지부로 승격되었다.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지부가 된 춘천지부는 이날 지부장에 크리스찬슨 장로, 제1보좌에 임훈호 형제를 지지하였다. 영동지방에는 하나뿐인 춘천지부의 승격을 축하하며 발전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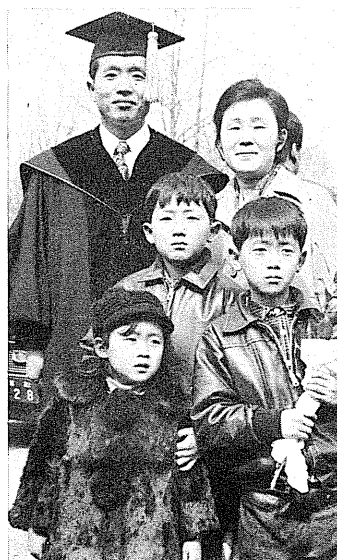
## 구 형제 득남

지난 2월 16일 소화 병원에서 득남의 기쁨을 가진 구중식 형제는 이제 1남 2녀의 아버지로서, 현재는 녹번지부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은 아주 좋으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라고……

박사 학위 수여식 날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최 형제와 서인석 자매, 장남 영규, 차남 창규 및 장녀 은경.

## 최옥환 형제 박사 학위 받다



현재 삼청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치과를 개업하고 있는 최옥환 형제는 지난 2월 26일 서울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학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그는 현재 2남 2녀의 아버지로서 훌륭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3월 3일에 가진 축하 모임에서 그의 간증을 통해 주님의 축복에 감사드렸다.

이날 축하 모임에는 선교부장을 비롯한 약 백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의 논문은 “DL-Ethionine 이 백서 체장의 단백 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기방사법적 연구”이다.